

# 국민의힘 부동산 투기 의혹 의원 12명 고강도 징계 촉각

## 권익위 전수조사 결과 발표

### 열린민주당 1명 포함...수사 의뢰

### 이준석 대표 "강하게 대처" 천명

### 탈당 권유 등 조치 내려질지 관심

국민권익위원회는 23일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중 12명에 대해 본인 혹은 가족의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법령위반 의혹의 소지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보다 더 강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인 국민의힘의 향후 대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당 소속 의원들의 부동산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강경한 입장이지만, 전체 국회의석수가 절반이 되면서 향후 대처가 소극적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소속 의원이 104명이라 출당 및 탈당 권유 등의 '징계 조치'에 따라 개헌저지선(101석)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게 탈레마

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이 민주당처럼 탈당 조치라는 강수를 두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권익위는 이날 국민의힘을 비롯해 정의당, 국민 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소속 국회의원들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총 507명의 부동산 거래를 전수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의힘에선 12명이 13건의 불법거래를 한 의혹이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 더불어민주당 대상 조사에서도 적발된 의원의 수도 12명이었다.

국민의힘 의원 관련 적발사항은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1건 ▲편법증여 등 세금탈루 의혹 2건 ▲토지보상법, 건축법, 공공주택특별법 등 위반 의혹 4건 ▲농지법 위반 의혹 6건이다.

열린민주당에서는 의원 1명이 1건의 불법 거래를 한 의혹이 제기됐다. 열린민주당을 제외한 4곳의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 중에서는 적발된 사례가 없었다.

권익위는 이같은 조사 결과를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송부해 수사를 의뢰했다.

이 같은 내용을 접한 국민의힘 안팎은 더욱 분주

해질 전망이다. 내부적으로는 강한 수위의 징계 조치로 민주당의 '내로남불' 이미지와 차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준석 대표는 전날 SNS를 통해 "제가 공언했던 입장을 지키겠다"며 "그것을 기반으로 지도부 다른 구성원의 의견을 참고해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더불어민주당보다 더 강하게 대처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6월 부동산 의혹이 제기된 12명에 대해 '탈당 권유'라는 고강도 결정을 내렸지만, 실질적으로 조치가 진행된 인사는 없다. 비례대표 2명은 제명했지만, 의원직 유지를 위한 '선제적 조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구 의원 10명은 전원 당적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도 강도 높은 조치에는 이르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정가 한 관계자는 "민주당도 애초 탈당이라는 초강수를 내놓았지만 물리적으로 후속 조치를 동반할 수는 없는 입장이며, 최근까지도 구체적인 행동을 하지는 않고 있다"며 "국민의힘도 소명절차와 민주당의 예 를 지적하며 시간을 끌 여지도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국민권익위원회 김태웅 부동산거래특별조사단장(상임위원)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의힘과 비교섭단체 5당 소속 국회의원 및 그 가족의 부동산거래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권익위는 국민의힘과 비교섭단체 5당의 의뢰로 지난 6월 말부터 이들 정당 소속의 국회의원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총 507명의 최근 7년간 부동산 거래를 조사해왔다. /연합뉴스

## 민주당 "국민의힘 부동산 의혹 엄정 조치해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23일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중 12명에 대해 본인이나 가족의 부동산 불법 의혹이 적발됐다는 국민권익위원회 발표와 관련해 "국민이 납득할 수준의 엄정한 조치를 내놓기 바란다"고 압박했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이제 국민의힘의 결단이 남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 수석은 "무관용 원칙"을 내세웠던 만큼 국민의힘의 처분에 국민의 시선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며 "이번만큼은 민심을 역행해 적당히 눈치 보며 빠져나갈 길을 모색하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의 공언이 실현이나 허언이 되지 않아야 한다"며 "약속을 지키는 제1야당의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의당도 이날 국민의힘에 부동산 법령위반 소지가 있는 국회의원 명단을 공개하고 엄정 조치하라고 촉구했다. 이동영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준석 대표는 부동산 투기 의혹 대상 국회의원 12명의 명단을 즉각 공개하고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엄정한 조치를 내려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부동산 투기 의혹 대상 의원들에 대해 더불어민주당보다 더 엄격히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조치를 하겠다고 공언했다"며 "(조치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을 비판할 자격도 없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내로남불 정당임을 고백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윤석열 29.8%·이재명 26.8%·이낙연 12.4%

### KSOI 대선 적합도 조사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이재명 경기지사가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여론조사기관 한국사회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 20~21일 전국 18세 이상 1천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전 총장은 29.8%, 이 지사는 26.8%를 각각 기록했다.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는 12.4%로 나타났다.

이외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8.4%) 최재형 전 감사원장(5.1%) 유승민 전 의원(3.6%), 민주당 소속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3.3%), 정의당 심상정 의원(2.1%) 순이었다.

법 진보권 적합도 조사에서는 이 지사가 29.3%를 받았고, 이 전 대표는 18.7%를 기록했다.

추 전 장관이 4.6%로 3위를 지켰고, 민주당 박용진(4.5%), 심상정 의원(4.4%) 순으로 나타났다.

법 보수권에서는 윤 전 총장이 28.4%로 선두를 지켰고 홍 의원이 20.5%로 뒤를 이었다. 홍 의원은 전주보다 3.9%포인트 오르면서 20%대에 진입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10.3%, 최 전 감사원장은 5.9%,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3.4%였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연합뉴스

## 광주형일자리 GGM 1호차 누가 탈까

### 이용섭 시장 "청와대서 타 주길"

### 박광태 대표 내달 임기 만료

### "현대차와 논의해 후임 인선"

전국 최초 지자체 주도의 '노사 상생형 일자리' 모델로 탄생한 광주글로벌모터스(GGM)가 다음달 신차 양산에 들어가면서 첫 생산 차량인 '1호차' 주인공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첫 양산 차량의 1호 주인공이 누가 되느냐에 따른 홍보 효과로 인해 판매량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이용섭 광주시장이 23일 "1호차를 상징적으로 청와대가 구입하면 좋겠다"는 바람을 밝히면서 청와대의 1호차 구입 여부가 주목된다.

이 시장은 이날 기자들과 차담회에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다음 달 공식 양산체제에 돌입하는 GGM 첫 생산 차량을 청와대에서 사 용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 시장은 "그동안 제1호차를 구입해 관용 차로 쓰겠다고 이야기 해왔으나, 광주형 일자리를 통해 생산된 첫 차인만큼 상징성적으로 청와대가 1호차를 구입하면 제2호차를 사겠다"고 말했다.

그는 "GGM 가동은 광주 일자리 창출에 그치지 않고 한국 경제 체질을 바꿔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라며 상징성을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1월 협약식,



지난 4월29일 글로벌모터스 준공식에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공장 내부를 둘러보고 있다.

지난 4월 공장 준공식에 참석했고 여야도 한목 소리로 지원하는 만큼 청와대에서 상징적으로 1호차를 타주면 의미가 클 것이다"고 덧붙였다.

다음 달 19일 임기가 끝나는 박광태 광주글로벌모터스(GGM) 초대 대표이사의 후임 인선 상황도 이 시장은 소개했다.

이 시장은 "국내에서 23년만인 자동차 공장 완공이 엄청나게 어려운 일인데도 박 대표는 GGM 공장을 최첨단 유연 시스템으로 완공시켰다"며 "다음 달 15일 경쟁력 있는 완성차가 나오니 초대 대표로서 역할을 마쳤고 연임 의사는 없다는 뜻을 최근 저에게 밝혀왔다"고 전했다.

광주시는 실질적으로 GGM의 최대 주주지만 형식적으로는 대리 투자한 광주 그린카진흥원에 추천권이 있어 이사회를 거쳐 주주총회에서 선임된다고 이 시장은 설명했다.

이 시장은 "여전히 중요한 노사 상생을 이끌고 GGM이 세계적인 위탁 생산 업체로 도약하려면 훌륭한 분이 (대표로)와야 하는데 이견은 없으나 그분이 누구냐, 대표로 오겠느냐가 논점"이라며 "주요 주주인 현대자동차와 깊이 있게 논의해 공감할 수 있는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201210-중-116878호 단, 환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바른자세, 꾸준한 운동, 세심한 관리로 튼튼한 '인생' 튼튼하게 '즐기세요'

척추 무릎 어깨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대표전화 | 062) 970-6000  
전화로 MRI를 미리 예약을 하시면 1~2시간 이내에 진단 및 치료가능!

소상공인 공동브랜드 k.tag 전국100개 인증업체선정

#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광주전남 기능장 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상장표창

특수가발 별매 (윈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기술. 1만명 이상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H.M사  
동급제품 130만원  
59만원~

광주 남구 주월동 1199-12 라인가든아파트 상가 2층(대광여고 옆)

## 062.673.5858 (모발모발)